



# Same People Different Senses

## 같은 사람, 다른 감각

**전시장소** 이음센터 2층 갤러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 서울 종로구 대학로 112)

**전시기간** 2020. 10. 7.(수) ~ 10. 11.(일)

**관람시간** 10시 ~ 18시, 매 정시 입장 (약 1시간 소요)

**관람방법** 장애체험 전시, 시간당 1그룹(7명 이하) 진행

**입장요금** 무료

- 본 전시는 정부 방역지침 준수 및 장애체험을 위해 시간당 관람인원을 7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 관람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제한)
- 전시 참여 후, 소감문을 작성하신 분들에게 자원봉사(2시간) 인증 또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 10월 말, 따뜻한동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3D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따뜻한동행 [www.walktogether.or.kr](http://www.walktogether.or.kr), 070-7118-1937



# 같은 사람, 다른 감각

## 장애체험 전시展

2020.10.7(수) ~ 10.11(일)  
이음센터 2층 갤러리(혜화역 2번출구,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2)

# 같은 사람, 다른 감각

## Same People Different Senses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하고 깊은 바닷속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고요함은 인간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매개체가 됩니다. 본 전시의 모든 과정은 완전한 소리를 차단하여 진행됩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청각 이외에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해 익숙하지만 낯선, 진정한 소통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요 속 여행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는 장애체험 전시를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같은 사람, 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 전시는 6개 공간의 동선을 따라 농인 가이드와 함께 진행합니다.

- 변신의 공간**  
 수어와 표정으로 전시회를 체험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소음을 차단하는 헤드셋을 착용하여 나비처럼 변신하는 공간
- 초대의 공간**  
 수어와 표정으로 첫 대화를 시작하는 공간
- 표현의 공간**  
 원형 테이블에서 표정, 입술, 수어 따라 하기 놀이를 통해 말을 하지 않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
- 고요의 공간**  
 고요한 공간에서 일상의 풍경 혹은 농인의 다양한 손동작과 표정이 담긴 영상을 체험하는 공간
- 기억의 공간**  
 전시전을 관람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회고하고 농인 가이드와 질의응답을 나누는 공간
- 이동의 공간**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고요한택시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

# 참여기관 소개

본 전시의 총괄 기획자이자 책 <고요속의 대화> 저자 노선영 작가((주)보이다 대표)는 선천성 청각장애인(농인)입니다. 그는 듣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혼자서 유럽으로가 글쓰기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었던 따뜻한동행과 함께 이번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2019년에 국내 최초로 청각장애를 체험하는 체험형 전시를 선보이고 높은 평점의 반응을 얻어 올해 다시 한번 전시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장애는 신체적인 장벽이 아니라 '같은 사람, 다른 감각'이라는 주제에 맞춰 수어로 소통하고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담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m.blog.naver.com/souldeaf](http://m.blog.naver.com/souldeaf)

고요한택시(제1회 따뜻한동행 장애인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대상)에서 새롭게 출범한 고요한M은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고요하고, 따뜻한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일반 중형택시에서 운행하던 고요한택시가 콜로 호출하면 SUV차량이 오는 고요한M 서비스로 출범했습니다. 운행 중 태블릿PC를 통해 소통할 수 있으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이동 경험을 제공합니다.



[www.goyohantaxi.com](http://www.goyohantaxi.com)

핸드스피크(제3회 따뜻한동행 장애인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대상)는 농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소셜벤처입니다. 수어뮤지컬 무직비디오 '누가 죄인인가' 등을 통해 수어로 가능성을 말합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경쾌한 손동작과 풍부한 표정을 보면 농인은 청인과 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www.handspeak.kr](http://www.handspeak.kr)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동행은 2010년 설립되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복지, 첨단보조기구, 일자리창출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순수 비영리 단체입니다.



[www.walktogether.or.kr](http://www.walktogether.or.kr)